

실습학기(인턴십) 최종보고서

- 인턴십 산업체명 광화문 월향
- 인턴십 과 정 명 : 월향 인턴십 과정
- 인턴십 기 간 : 2019 . 6 . 24 . ~ 2019 . 8 . 4 .

2019 . 08 . 08

우 송 대 학 교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 3 학년

본문

I. 서론

인턴을 하는 목적은 실질적인 실무경험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있는 조리업무 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해외인턴쉽일 경우 영어실력 증진과 함께 선진국 기업에서 실질적인 일을 습득함으로써 직업시장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더불어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적인 시각을 넓히는데 그 의미를 더한다.

II. 본론

본인이 수행한 광화문월향인턴쉽은 하루매출 약 1000만원 정도의 규모의 한식레스토랑으로 광화문에 위치해있다. 본인은 광화문 인턴쉽을 통해 하루매출 1000만원에 달하는 레스토랑의 시스템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묻고 배웠으며 발주하는 목록부터 발주하는 시기 발주하는 방법등 직원들하는 분야까지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주로 수행하였던 조리팀에서 전판, 숯불판에서 2주 탕판에서 2주 콜드에서 2주를 근무하였습니다. 인턴쉽을 수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수업들이 도움이 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용어정리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행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조리 용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III. 결론

인턴쉽과 교육과의 연계를 좀더 고려한다면 인턴쉽이 더욱 유익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평사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수행하였는데 새로운 자리로 배치될 경우 인턴과정의 유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교육과정을 수행한다면 연속적인 교육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전체적인 인턴쉽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신입사원과 같은 과정을 수행해야 했다는 점도 아쉽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아쉬움을 찾는다면에 한한 것이다. 평사원과 같은 대우는 오히려 교육에 있어 실질적이었고 부서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 오히려 인턴쉽을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평사원과 차등 대우를 하고 업무보다 잡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좋지 않다.